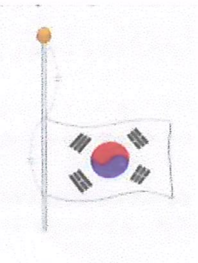
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.

◇ 오는 8월 29일은 경술국치일입니다.

- 경술국치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 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날입니다.
- 부산시에서는 치욕의 역사를 기억하고, 일본의 그릇된 역사 인식에 민족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경술국치일(8. 29)에 조기(弔旗)를 게양토록 조례를 제정·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우리 모두 태극기(弔旗)를 게양하여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을 기억합시다. 또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분들의 나라사랑하는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.

《 조기(弔旗)는 이렇게 답니다.》



△ 깃봉에서 깃면의 세로길이 만큼 내려 답니다

*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,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내려 게양

△ 조기(弔旗)는 경술국치일 당일에만 게양 합니다

△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 경사스러운 날에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므로, 현충일,경술국치일에는 게양하지 않습니다.

△ 심한 비·바람(악천후)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,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

《 가정에서의 태극기 게양 위치 》

△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(각 세대의 난간)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.

※ 태극기 게양시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고,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람